

# 고개 가는 길



김 호 섭

김효일은 잠들수가 없어 종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희옅스름한 별빛이 흐르고있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술이 많은 눈섭, 반짝이는 눈빛, 꼭 다문 입, 단단한 체격. 어딜 보나 그는 20대의 젊은 혈기가 흐르는 리지적인 청년이었다.

이제 날이 새면 김효일은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지금 효일은 높뛰는 심장을 억제하며 길지 않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아니, 지나온 날들이 흘러가는 영화화면처럼 하나하나 다시금 되새겨진다. 그럴수록 가슴을 치는것은 별로 해놓은것도 없는 자기가 어렵고 힘든 발전소건설장과 새로운 탄광과 광산의 개발지들에 남먼저 탄원하고 심장을 바쳐 묵묵히 일하면서도 그것을 극히 평범한것으로 여기는 청년들과 외진 산골과 멀고먼 섬마을의 교단에 스스로 찾아가는것을 웅담한것으로 생각하며 또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남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주고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것을 레사로운것으로 여기는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과 나란히 자리를 같이한다는 그것이었다.

그것으로 하여 더욱 잠들수 없는 그였다.

효일이 이런 자책속에 모태길 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섰다.

《어머니.》

《효일아,이 에민... 정말 꿈만 같구나.》

《어머니, 전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후회돼요.》  
효일은 고개를 떨구며 진심으로 말하였다.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자꾸나.》

어머니의 말씀에 효일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뜨겁게 달아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도 변함없이 30년간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쳐온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머리칼도 반백이 되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리선희는 아들이 내어주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었다.

리선희는 집안의 막내인 효일이가 미덥고 대견해 보였다. 그는 행복으로 가득찬 눈웃음을 지으며 다정히 입을 열었다.

《종시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일어났다. 너와 나란히 앉으니 별생각이 다 나는구나. 참, 뛰니뛰니해도 네 동무 신혁이가 얼마나 반가와하겠니?》

《예. 반가와할거예요.》

《이젠 눈을 좀 붙여라.》 하며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홀로 남은 효일은 책상우에 놓인 액틀속의 사진을 처음 보듯 새삼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딱친구인 강신혁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짝지지 않는 열정가들이었으며 의리심 또한 자랑할만 한 친구들이었다.

효일은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져버렸다.

《뭐라구,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효일이가 어느 한 인민군 부대의 후방일군으로 일한다는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강신혁이 놀라서 한 말이었다.

그날 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맡겨진 일을 다 끝내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온 효일이가 기다리던 어머니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손가락을 방금 놓았을 때였다.

《똑똑똑.》

다급하게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깊은 밤에 누굴까?

효일이가 움쭉 몸을 일으켜 나들문쪽으로 나갔다.

《아니?! 이 밤중에 네가 어떻게...》

효일이가 놀라서 말도 채 맺지 못하는데 털모자며 솜옷에 눈가루를 뒤집어쓴 신혁이가 싱글벙글거리며 방안으로 들어와 선희에게 인사를 하였다.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난 건강하네. 그런데 어떻게 이 밤중에... 어서 앉게. 내 얼른 나가...》

신혁이 부엌으로 나가려는 선희의 두손을 꼭 잡고 다시 자리에 앉히며 말하였다.

《아, 어머니,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며 가지고 온 가방이 마치 요술가방이나 되는듯 가끔음식들을 척척 내놓는것이였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도...》

《날은 무슨 날.》이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던 신혁은 놀라서 자기를 바라보는 효일이와 선희의 얼굴을 일별해보며 근엄한 표정을 짓더니 자못 심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내 오늘 어머니앞에서 효일동무에게 친구의 자격으로 좀 아픈 말을 하자고 합니다.》

신혁의 뜻밖의 행동에 효일보다 선희가 더 당황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신혁은 효일에게 눈길을 돌렸다.

《내가 이 깊은 밤 추위도 마다하고 왜 왔는지 알겠지? 대답해보게. 군복을 거절했다는게 사실인가?》

《신혁이, 사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라구.》

신혁의 어조는 단호하였다.

《난 네가 누구보다 더 잘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뭐 후방일군이라구? 물론 후방일군도 중요하지. 하지만 동창생들을 좀 보게. 신일이, 대철이,

광복이, 그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나? 또 중요하게는 이 길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잇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만두라구.》

효일은 가슴이 아픈듯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윽고 효일은 신혁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날 생각하는 네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니? 하지만 난 군복을 입을수 없었다.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거니와 그보다 먼저 우리 군인들의 생활문제를 놓고 그렇게도 마음써오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이 한몸을 바치고싶었다. 그래서...》

신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그게 진심이니?》

《그래, 진심이다.》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신혁이 뜻밖에도 머리를 끄덕이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 그럴테지. 자식, 넌 진짜 내 동무다. 난 그런줄도 모르고... 내 널 힘껏 돕겠다.》

기쁨에 넘쳐 효일의 손을 잡고 흔들던 신혁이 선희에게로 돌아섰다.

《어머니,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신혁은 어쩔새도 없이 문을 나섰다.

《아니, 이 사람!》

《신혁이!》

효일은 가버린 신혁의 모습에서 자기가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금 가지었다.

《어머니, 제 힘들어도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후회없이 한생 이 길을 끝까지 걸으렵니다.》

《효일아, 장하다.》

그날 밤 효일은 어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새롭게 듣게 되었다.

할아버지 김윤득은 해방전 함경남도 허천군 외진 산골의 어느 한 마을에서 구장을 하면서 조국 광복희생원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벌리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할아버지는 일제놈들에게 그만 체포되었다. 모진 고문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던 할아버지는 함흥형무소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날 언제나 단정한 흰 무명바지저고리에 조끼를 받쳐입던 할아버지는 넓고 피가 묻은 허름한 죄수복을 입고 서있었다. 하지만 기상만은 변함이 없었다.

왜놈들은 재판장에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

《김윤득, 넌 기와집이나 쓰고살면서 우리가 시

키는 구장질이나 공손히 하면 처자 입건사도 하고 편안하겠는데 무슨 혁명이요, 뭐요 하면서 감히 우리 대일본제국과 맞서려고 하는가, 양?)

김윤득은 충혈진 두눈으로 원썩놈들에게 불을 내뿜듯 힘차게 부르짖었다.

《대일본제국?! 닥쳐라. 나는 조선사람이다. 이제 네놈들은 우리 인민이 어떻게 대일본제국과 맞서 싸워 이기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좋다. 네놈은 총살이다.》

《두렵지 않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웨치고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보천보전투에서 얻어맞은 왜놈들이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합니다. 그 길만이 조국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뭘하는가? 당장 끌어내라.》

할아버지는 왜놈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큰소리로 《여러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라고 웨치고 또 웨쳤다....

(그래,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 총대를 쥐고 결전장에 선 병사처럼.)

이렇게 김효일은 병사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험한 산, 높은 평을 다 넘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총대를 틀어쥔 병사들의 밀거름이 되기 위하여 후방일군의 첫 자욱을 떼었던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들을 기다리던 리선희는 밤 12시가 가까와오자 끝내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섰다.

(이렇게 한층한층을 내려서느라면 기다리던 효일이 오겠지.)

현관문앞에 이르렀는데도 효일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캄캄한 하늘에서는 못별들만이 반짝이고 바람소리만이 불안스레 울리고있었다.

그가 안타까이 어둠속을 지켜보고있는데 《어머니.》 하는 아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울렸다.

선희는 벌써 여러달동안이나 이렇게 늦게 집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두고 걱정을 하고있었다.

《효일아, 매일 밤 이렇게 늦어야 하니? 그러다 병이라도 만나면 어찌겠니.》

《어머니.》

안타까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효일의 두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였다.

이 순간 효일은 밤늦게까지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며 훌륭한 후방일군이 되어 병사들의 식탁을 꾸밈하게 해주려고 다진 자기의 마음속 결심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갈마들었다.

(누가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은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정말 내가 끝까지 갈수 있을까?)

효일은 돌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마음속 심중을 안고 안타까운 어조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내가 이 길을 꽤 가낼가요?》

《네가 힘든 모양이구나.》

아들의 속마음을 헤아려본 리선희는 조용히 긴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그의 조용조용한 목소리가 현관안에 울렸다.

《효일아, 나에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그날 비에 옷을 훌쩍 젖은 효일이 밤늦게야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선희는 효일이의 젖은 옷을 받아들며 말하였다.

《효일아, 이자 방금 미령이 외할머니가 왔다갔구나.》

미령이라면 형님의 딸이었다.

미령이가 태어났을 때 출장길에 올랐던 효일은 조카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지금은 일이 바빠 귀여운 조카에게 고운 옷 한벌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가시가 박힌것처럼 아팠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효일은 대번에 걱정이 어리었다.

《무슨 일이 있대요?》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 집을 수리해야했는데 자재들이 결린다면서 내가 좀 도와주었으면 해서 우정 찾아왔더구나.》 하며 선희는 종이장에 써놓은 자재명세를 내놓았다.

효일이가 건설을 위해 얼마간의 세멘트와 자재들을 구입했다는것을 선희도 알고 또 미령이 외할머니도 잘 알고있었다.

《형님도 출장가고 없는데 내가 우리 미령이를 위해 삼촌구실을 하면 형님도 좋아하고 형수도 얼마나 좋아하겠니.》

어머니의 말을 들은 효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귀여운 조카를 위해 도와주고싶었다. 그 집에서 제기되는 자재들을 싣고가면 미령이 외할머니랑 얼마나 좋아하랴.

《그저 미령이 삼촌이 제일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하며 밝게 웃는 미령이 외가견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막 보이는것 같았다.

효일은 당장이라도 자재들을 싣고 가고싶었

다. 그보다도 사돈집을 생각하는 어머니를 돕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 그렇게는 못할것 같아요.》

선희는 아들의 그 말을 웃음으로 받아넘기며 다시 매달렸다.

《거저 달라는게 아니다. 먼저 쓰고 쓴 자재들을 꼭 되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단다. 당장 급한 모양인지.》

하지만 효일은 침묵이었다.

《왜 힘드나?》

효일은 생각다못해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앞으로 한무릎 나앉았다.

《난 네가 도와나섰으면 한다. 그좁한 일이야 못하겠니. 쓴 자재들은 돌려준다는데. 너도 생각나겠지? 내가 아파할 때 미령이네 외가집에서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글썽 그걸 갚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인정에는 인정으로 해야지. 효일아, 좀 생각해보아라.》

효일은 안타까와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리해되었다. 하지만.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전 이 일을 시작할 때 맘속으로 맹세한것이 있습니다.》

효일은 힘든 고비때마다 마음속으로 새겨보군 하던 맹세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하지 못한 삼촌구실은 후에라도 할수 있지만 병사들을 위해 내가 말은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총대가 그만큼 약해집니다. 총대가 약해지면 내가 어떻게 삼촌구실을 하겠습니까.》

선희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새 몰라보게 달라진 아들이었다. 대견스러웠다.

《그러니 국사란 말이지. 그래, 내가 미처 그렇게까지의 생각하지 못했구나. 네 말이 옳다. 날 용서해라.》

《어머니, 고마워요.》...

이야기를 하고난 선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다.

《난 네가 그때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날의 맹세를 지켰으면 한다. 자, 이제 그만 올라가자꾸나.》

효일은 흔들리려는 그날의 맹세를 자기의 가슴속에 신념의 대로 꺾듯이 새워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뜨겁게 안으며 앞서 계단을 오르는 어머니의 모

습을 눈물에 젖은 눈길로 지켜보았다.

아, 언제면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다 알가.

효일은 이런 생각에 잠겨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둔 효일이었기에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올수 있었던것이였다.

×

생각에서 깨어난 김효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갔다. 하늘가 저 멀리에서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친구에 대한 생각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자 문득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일하시다 순직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라.

효일의 아버지 김철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갈수 있었지만 공민의 신성한 의무인 조국보위초소로 먼저 달려갔다.

그 당시 아버지의 친구들은 부모들이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했는데 아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가 탓하겠는가고 통삼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룡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 부모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목숨걸고 싸운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 자식들의 안일한 생활을 위한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나는 부모들이 목숨바쳐 찾아준 조국을 총대를 틀어쥐고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군대로 가는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최전연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였던것이다.

그 나날의 아버지세대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로, 어렵고 힘든 초소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으며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를 온 세계에 남김없이 펼쳐 내 조국의 억년 드눌지 않을 튼튼한 기초를 쌓아나갔다.

오늘은 새 세대 청년들이 전세대들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이어가고있다.

효일은 그렇듯 총대를 쥐고 조국을 지켰고 제대후에도 조국을 위해 묵묵히 자기를 바친 아버지앞에 떳떳하게 살고싶었던것이다.

효일이가 후방일군으로 제일먼저 시작한 일이 돼지고기생산을 늘이는 일이었다. 여기서 결린 문제는 돼지우리의 난방화였다.

《겨울에는 돼지우리가 추워서 새끼낳이를 못합니다. 결국 종축돼지만 기릅니다.》

축산반사사람들의 말이였다. 그들은 계절적인 조건이기때문에 어찌지 못하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더욱 이해할수 없는것은 자재타산만 하면서 속수무책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럼 돼지고기생산은 여름철에만 한다는 소리인데...》

효일의 생각은 깊어졌다.

병사들을 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사계절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계절을 골라가면서 일을 하다니. 아니다, 돼지고기생산은 계절을 몰라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것을 과학화해야 한다. 그래야 돼지고기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을 찾아가 많은것을 보고 배웠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뛰어다니였다.

때로는 어느 한 세멘트공장에서, 과학원의 어느 연구소에서 아침을 맞이했고 이름모를 산기슭에서 맑은 샘물로 끼니를 에울 때도 있었다.

이런 날과 날들이 흘러 어느덧 그는 돼지고기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그날 효일은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금은 수백마리의 돼지들로 새끼낳이도 하고 고기생산도 정상화하고있다.

또한 수십정보의 밭에서 겨울철의 비알곡먹이를 생산하고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도 마련해놓았다. 뿐만아니라 먹이조성과 생산, 돼지우리의 실시간 감시와 위생방역사업 등 모든것을 컴퓨터에 의한 조종체제로 진행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현대적인 온실을 건설하여 병사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먹일수 있게 하였다....

×

드디어 아침해살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며 떠올랐다.

잊지 못할 지난날의 추억속에서 깨어난 효일은 어머니와 함께 서둘러 현판문을 나섰다.

현판문앞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안은 신혁이가 효일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뒤로 동창생들인 신일이, 대철이, 광복이들의 웃음진 얼굴도 보였다.

효일에게 다가선 신혁이가 그의 앞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하였다.

《효일이, 진심으로 축하하네.》

《고마워.》

신혁이가 크게 웃으며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들중에서 네가 제일먼저 이런 영광을 받아 안는구나. 이제부터 우린 네뒤을 따르레니 계속 앞에서 달려달라구.》 하는 신혁의 말에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며 효일에게 모여들었다.

《그래, 그건 우리모두의 심정이다.》

효일은 그들모두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우리모두 끝까지 함께 달려보자.》

《약속한다.》

이윽고 효일은 어머니와 동창생들의 뜨거운 인사를 받으며 대회장으로 떠났다.

병사들을 위해 한생 이 길을 걸으려는 자기의 그 마음을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고 시대의 절정에 세워준 우리 당의 사랑이 있어 오늘은 혁명의 계승자로 시대앞에 떳떳하게 나섰다고 생각하니 효일의 마음은 뜨거움으로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전 부모들의 뒤을 이어 끝까지 이 길을 가렵니다.》

효일은 이 순간 조국해방을 위해 왜놈들과 끝까지 싸운 할아버지와 그뒤을 꿋꿋이 이어온 아버지가 자기의 모습을 긍지스럽게 지켜보고있는것만 같았다.